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헌하¹ · 정유진² · 남경아²

¹고신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²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Influences of Parents' Neglect, National Identity and Self-resilie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 Adaptation

Cho, Hun Ha¹ · Jung, Yu Jin² · Nam, Kyung ah³

¹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Busan, Republic of Korea;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Busan, Republic of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parental neglect, national identity, and self-resilien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 adaptation. **Methods:** Participants are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4th year (2014)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2.0 program. **Results:** Self-resilienc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llowed by parental neglect, and national identity, mother's Korean reading ability, multicultural adolescents' speaking ability, city size, mother's education, and mother's speaking ability. **Conclusion:** Multicultural families who had an experience of parental neglect should be selected and those parents need to be educated about the appropriate parenting method to improve the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addition, the school adaptation improvement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to strengthen the national identity and self-resilienc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s, Adaptat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2006년에 93,786명이었으나 2020년에 168,594명으로 약 7만 4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 이처럼 결혼이민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청소년 수는 2014년 6만 7천여 명에

서 2018년 12만 2천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2]. 이는 이미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된 상태이며[3] 다문화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하고 생활하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이 외에 탈북민 자녀, 입국 재외동포 가정의 자녀 등이 해당된다[4].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어 실력의 부족과 동시에

주요어: 다문화, 청소년, 학교, 적응

IRB 승인기관 및 번호: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No: KU IRB 2022-0053]

Corresponding author: Nam Kyung ah (<https://orcid.org/0000-0002-0872-8288>)

Departmen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45, Jurye-ro, Sasang-gu, Busan 47011, Republic of Korea

Tel: +82-51-320-4904 Fax: +82-51-320-2804 E-mail: kanam@eagle.kit.ac.kr

Received: 13 February 2023 Revised: 28 March 2023 Accepted: 6 April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Derivs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4.0/>) If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nd retained without any modification or reproduction, it can be used and re-distributed in any format and medium.

이중언어에 대한 부담감을 겪게 되고, 외국인 출신 부모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으로 인하여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4]. 또한 다문화 내에서는 부모와 대화 단절, 부모의 감독 부족, 부모의 방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 내에서의 위축은 사회적 위축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요인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교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4,5].

청소년기인 13-15세는 본격적인 사춘기와 더불어 방임의 위험요인이 높은 시기로 다문화 청소년은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5]. 특히 중학교 1학년 시기는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자아정체감 확립과 학업에 대한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다[6].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최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적응은 학교환경에서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처하며, 학생의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교환경을 수용하고 변화시키며 학생이 학교와의 균형을 맞춰가는 역동적 과정이다[7]. 다문화의 자녀들은 헌법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8].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의 8.2%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유형은 말로 하는 협박과 욕설이 61.9%, 집단 따돌림이 33.4%로 보고되었다[9].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 생활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담임교사, 반 급우들의 태도로 인해 거절감과 위축을 경험하고 경계와 편견,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경험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8]. 이러한 학교에서의 따돌림이나 부적응의 문제로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다[3].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좌절, 학업중단, 중도탈락, 따돌림, 왕따와 같은 학교 부적응은 정체성 혼란을 겪게 하며 비행과 범죄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4]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은 다양한 학교적응 요인 중 효과가 큰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감정통제, 활력성, 대인관계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자아탄력성은 다문화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따

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으로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가족 요인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언행을 의미한다[13]. 여성가족부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자녀의 53.4%가 평일에 혼자 방치되어 방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9]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부모 애착과 감독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14]. 다문화 어머니는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15].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격과 정신건강, 학교생활 적응 등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10]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16].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족 요인 외에 다문화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습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문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한다[17]. 이중문화수용태도[18], 국가 정체성[19]과 같은 다문화 요인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은 감정적 혼란과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이며, 다문화 청소년은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자신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5].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은 학업중단 또는 중도탈락과 같은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 비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11].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문화 요인에서 국가 정체성은 중요한 요인이라 여겨진다[19].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과 같은 요인 이외에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성별[7], 지역 규모, 본인의 한국어 정도,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정도[11]와 관련이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 선행연구는 일부 변수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 혹은 종단적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성장 발달상 학령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큰 변화와 더불어 자아정체감 확립과 학업에 대한 부담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해당하는[15]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가족 요인, 다문화 요인, 개인 요인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2차 자료를 활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중 중학생 1학년 시기인 제4차 년도(2014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인 어머니는 외국계, 아버지는 한국인인 다문화의 청소년 어머니와 자녀가 상호 영향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현재 결혼 상태가 결혼인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총 1,20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바탕이 되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에 사용된 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를 위해 개발한 문항이며, 설문 문항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의 조사 문항은 관련 학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둘째로, 전문가의 구성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예비문항을 확정하였다. 셋째로,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를 위한 최종 문항을 확정하여 사용하였다.

1) 부모 방임

Heo[19]가 개발한 아동학대 관련 문항의 일부를 기반으로 Lee 등[20]이 활용한 측정도구를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정·보완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방임적 양육태도는 총 7문항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서적 지원, 필요의 제공, 의료적인 지원,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일상생활의 지원의 내용을 포괄하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문항으로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가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긍정 문항을 역 점수화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방임 경험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Heo [19]의 연구에서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2) 국가 정체성

Seong[21]이 개발한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 중 집단개입 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에 대한 감정개입 현상을 측정한 4가지 질문의 평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국가 정체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Seong[21]의 연구에서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3)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22]이 개발한 척도를 Yoo와 Shim[23]이 변한 후 수정·보완한 척도를 Kwon[24]에서 재인용하여 수정한 Kim 등 [25]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총 14문항으로, 감정통제 2문항, 활력성 2문항, 호기심 5문항, 대인관계 3문항, 낙관성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Block과 Kremen[22]의 연구에서 .76, Yoo와 Shim[23]의 연구에서는 .67, Kwon[24]의 연구에서는 .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학교 적응

Lee 등[26]이 개발한 학교 적응 중 학습활동 5문항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학교 적응 변수는 총 5문항으로 학교수업 적응, 학교 친구관계, 학교 교사관계의 세 가지 범주를 포함하며, 학교 적응변수는 세 가지 범주의 하위항목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4점 리커트 척도로 부정 문항을 역 점수화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교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Lee 등[26]의 연구에서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5)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다문화 청소년 성별 거주 지역 거주지역 규모 가구 월수입 부모 연령 어머니와 청소년의 한국어 실력 부모 교육 수준 어머니 출신국, 다문화 청소년의 국적 인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contents/siteMain.do>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제4차 년도(2014년) 자료 사용 승인을 얻은 후 해당하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부모 방입,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최솟값과 최댓값으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부모 방입,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부모 방입,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고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승인

(KU IRB 2022-0053)을 받은 후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contents/siteMain.do>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제4차 년도(2014년) 자료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고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616명(51.0%)으로 많았고 거주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이 317명(26.2%), 경상권이 278명(23.0%), 전라 및 제주권이 262명(21.7%), 충청 및 강원권이 241명(20.0%), 서울이 110명(9.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규모는 중소도시가 538명(44.5%), 월수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463명(38.3%), 어머니의 나이는 40대가 799명(66.1%), 아버지 나이는 40대가 628명(52.0%)로 가장 많았다. 다문화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 1,151명(95.3%), 쓰기 993명(82.2%), 읽기 1,082명(89.6%), 듣기 1,149명(95.1%) 능력이 높았고,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중 말하기 1,194명(98.8%), 쓰기 1,176명(97.4%), 읽기 1,188명(98.3%), 듣기 1,197명(99.1%) 능력이 높았다. 다문화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하가 567명(46.9%),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하가 637명(52.7%)으로 가장 많았다. 다문화 어머니의 모국은 일본 452명(37.4%), 중국 224명(1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이라는 인식이 899명(74.4%), 두 나라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297명(24.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2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hool adaptation	
			M±SD	t or F (p) Scheffé test
Gender	Male	592 (49.0)	14.49±2.63	0.57 (.566)
	Female	616 (51.0)	14.40±2.64	
Residential area	Seoul	110 (9.1)	14.45±2.67	0.75 (.556)
	Gyeonggi-do and Incheon	317 (26.2)	14.34±2.76	
	Chungcheong-do and Gangwon-do	241 (20.0)	14.69±2.59	
	Gyeongsang-do	278 (23.0)	14.34±2.56	
	Jeolla-do and Jeju island	262 (21.7)	14.45±2.59	
City size	Large city ^a	301 (24.9)	14.52±2.66	4.75 (.009) b<c [†]
	Small and middle city ^b	538 (44.5)	14.20±2.55	
	Eup/Myeon ^c	369 (30.5)	14.74±2.70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a	327 (27.1)	14.45±2.66	2.78 (.026) b<e, c<e [†]
	200 ≤, < 300 ^b	463 (38.3)	14.35±2.51	
	300 ≤, < 400 ^c	284 (23.5)	14.37±2.77	
	400 ≤, < 500 ^d	80 (6.6)	14.43±2.68	
	500 ≤ ^e	54 (4.5)	15.59±2.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chool adaptation	
			M±SD	t or F (p) Scheffé test
Mother's age	Twenties	16 (1.3)	13.25±2.49	1.25 (.286)
	Thirties	245 (20.3)	14.39±2.53	
	Forties	799 (66.1)	14.50±2.70	
	Fifties	146 (12.1)	14.36±2.49	
	Sixties over	2 (0.2)	12.50±0.71	
Father's age	Thirties	18 (1.5)	15.11±2.76	0.69 (.557)
	Forties	628 (52.0)	14.46±2.68	
	Fifties	542 (44.9)	14.38±2.59	
	Sixties over	19 (1.6)	14.90±2.36	
Mother's Korean ability (speaking)	Bad	57 (4.7)	13.75±2.25	-2.02 (.044)
	Good	1151 (95.3)	14.48±2.65	
Mother's Korean ability (writing)	Bad	215 (17.8)	13.60±2.43	-5.19 (<.001)
	Good	993 (82.2)	14.62±2.64	
Mother's Korean ability (reading)	Bad	126 (10.4)	13.25±2.34	-5.41 (<.001)
	Good	1082 (89.6)	14.58±2.63	
Mother's Korean ability (listening)	Bad	59 (4.9)	13.42±2.31	-3.05 (.002)
	Good	1149 (95.1)	14.49±2.64	
Adolescents's Korean ability (speaking)	Bad	14 (1.2)	11.71±2.16	-3.92 (<.001)
	Good	1194 (98.8)	14.47±2.62	
Adolescents's Korean ability (writing)	Bad	32 (2.6)	13.38±2.52	-2.33 (.020)
	Good	1176 (97.4)	14.47±2.63	
Adolescents's Korean ability (reading)	Bad	20 (1.7)	13.45±2.39	-1.70 (.090)
	Good	1188 (98.3)	14.46±2.64	
Adolescents's Korean ability (listening)	Bad	11 (0.9)	12.73±1.62	-2.17 (.030)
	Good	1197 (99.1)	14.46±2.64	
Mother's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a	127 (10.5)	13.75±2.47	4.78 (.001) a<d, a<e [†]
	Less than college ^b	567 (46.9)	14.47±2.64	
	College (2 or 3-year education system) ^c	320 (26.5)	14.41±2.52	
	College (more than 4-year education system) ^d	186 (15.4)	14.78±2.80	
	Graduate school (including mater's and doctoral courses) ^e	8 (0.7)	16.88±2.42	
Father's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370 (30.6)	14.23±2.64	2.66 (.032) (-) [†]
	Less than college	637 (52.7)	14.41±2.61	
	College (2 or 3 year education system)	82 (6.8)	14.79±2.60	
	College (more than 4 year education system)	108 (8.9)	14.97±2.61	
	Graduate school (including mater's and doctoral courses)	11 (0.9)	15.64±3.35	
Mother's country	China (Chinese)	85 (7.0)	14.48±2.81	2.10 (.050) (-) [†]
	China (ethnic Korean living in China)	224 (18.5)	14.68±2.60	
	Vietnam	31 (2.6)	13.87±3.02	
	Philippines	305 (25.2)	14.11±2.69	
	Japan	452 (37.4)	14.64±2.61	
	Thailand	46 (3.8)	13.89±2.37	
	Any other nations	65 (5.4)	14.40±2.27	
Awareness of nationality	Korean	899 (74.4)	14.34±2.62	4.54 (<.001) (-) [†]
	Father's or mother's nation	6 (0.5)	12.17±1.72	
	Father's and mother's nation	297 (24.6)	14.82±2.65	
	Don't know	6 (0.5)	13.17±2.64	

[†]Scheffé test;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A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N=1,208)

Variables	Number of items	Total M±SD	Min	Max	Item M±SD	Range
Parents' neglect	10	17.61±4.52	10	36	1.76±0.45	1-4
National identity	4	11.11±2.63	4	16	2.78±0.66	1-4
Self-resiliency	14	42.84±6.52	19	56	3.06±0.47	1-4
School adaptation	5	14.44±2.64	5	20	2.89±0.53	1-4

† M=Mean; SD=Standard Deviation; Min=Minimum; Max=Maximum

2. 대상자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부모 방임 정도는 평균평점 1.76±0.45점(4점 만점)이었고, 국가 정체성은 평균평점 2.78±0.66점(4점 만점)이었고,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 3.06±0.47점(4점 만점), 학교 적응은 평균평점 2.89±0.53점(4점 만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 적응의 차이

대상자의 학교 적응의 정도는 거주 지역 규모(F=4.75, p=.009), 가구 월수입(F=2.78, p=.026), 어머니 한국어 말하기 능력(t=-2.02, p=.044), 쓰기 능력(t=-5.19, p<.001), 읽기 능력(t=-5.41, p<.001), 듣기 능력(t=-3.05, p=.002),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t=3.92, p<.001), 쓰기 능력(t=2.33, p=.020), 읽기 능력(t=1.70, p=.090), 듣기 능력(t=2.17, p=.030), 어머니 학력(F=4.78, p=.001), 아버지 학력(F=2.66, p=.032), 어머니의 출신국(F=2.10, p=.050),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 인식(F=4.54,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아버지 학력, 어머니 출신국,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 인식에서는 항목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라 읍·면에 거주하는 군이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군보다 학교 적응이 높았다. 가구 월수입에서는 500만원 이상인 군이 200만원, 300만원인 군보다 학교 적응이 높았고, 어머니의 학력에서는 중학교 졸업 미만이 4년제 대학 졸업과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보다 학교 적응이 낮았다(Table 1).

4.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의 상관관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국가 정체성(r=.27, p<.001), 자아

탄력성(r=.4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부모 방임(r=-.43,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5.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변수(거주 지역의 규모, 가구 월수입, 어머니 한국어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읽기 능력, 듣기 능력,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읽기 능력, 듣기 능력, 어머니 학력)를 터미 변수 처리한 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보는 지표인 Durbin-Watson 통계량이 1.93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가 0.76~1.00으로 0.1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0~1.30으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차 분석 결과 정규성, 등분산성, 선형성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8.16, p<.00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β=.33, p<.001)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 방임(β=-.30, p<.001), 국가 정체성(β=1.00, p<.001), 어머니의 한국어 읽기 능력(β=.09, p=.001),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β=.06, p=.008), 거주 지역 규모(β=.06, p=.018), 어머니의 학력(β=.05, p=.026), 어머니의 말하기 능력(β=-.06, p=.032)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학교 적응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은 34.0%이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 among Parents' Neglect, National Identity, Self-resilience, and School Adaptation

(N=1,208)

Variables	Parents' neglect	National identity	Self-resilience	School adaptation
	r (p)	r (p)	r (p)	r (p)
Parents' neglect	1			
National identity	-.19 (<.001)	1		
Self-resilience	-.31 (<.001)	.37 (<.001)	1	
School adaptation	-.43 (<.001)	.27 (<.001)	.48 (<.001)	1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chool Adaptation

(N=1,208)

Variables	B	SE	β	t	p	Adjusted R ²
(Constant)	6.89	1.36		4.59	<.001	
Self-resilience	.14	.01	.33	12.58	<.001	.23
Parents' neglect	-.17	.01	-.30	-11.95	<.001	.32
National identity	.10	.03	.10	3.85	<.001	.33
Mother's Korean ability (reading)	.80	.23	.09	3.49	.001	.33
Adolescent's Korean ability (speaking)	1.57	.59	.06	2.68	.008	.33
City size	.32	.13	.06	2.37	.018	.33
Mother's education	.45	.20	.05	2.23	.026	.34
Mother's Korean ability (speaking)	-.71	.33	-.06	-2.14	.032	.34
Adjusted R ² =.340, F=78.16, p <.001						

† B=Un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SE=Standard Error; β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p =probability value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제4차년도(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평균평점 2.89점(4점 만점)으로 Park 등[11]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 평균평점 3.04점(4점 만점)과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 정도는 중간보다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은 평균평점 1.76점(4점 만점)으로 Hong과 Park[27]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평균평점 1.76점(4점 만점)과 유사하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부모방임은 중간보다 약간 낮은 편이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은 평균평점 2.78점(4점 만점)으로 Lee[28]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 평균평점 2.77점(4점 만점)과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은 중간보다 높은 편이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 3.06점(4점 만점)으로 Park 등[16]의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평균평점 3.06점(4점 만점)과 유사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중간보다 높은 편으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학교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14].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학교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 내의 다문화청소년 상담원을 활용하여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청소년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거주 지역의 규모, 가구 월수입, 어머니와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읽기 능력, 듣기 능력, 어머니의 학력 따라 학교 적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부모 방임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 방임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 적응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Hong과 Park[2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문화 가정 부모의 경우 국내 교육환경이나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있고[28] 부모의 지속적인 방임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따라서 학교에서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방임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양육태도 및 방법, 청소년의 발달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어머니의 한국어 읽기 능력,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 거주 지역 규모,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말하기 능력이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었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이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높아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한다는 선행연구[13]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감정을 잘 통제하고 또래친구들과 대인관계 형성을 잘하여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4]. 더욱이 학령전환기인 중학교 1학년은 새로운 또래와 학교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시기이므로[13]

학교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 제공과 함께 활동을 지지해주고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 방임이었다. 이는 Kim 등[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자녀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을수록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며, 부모의 방임이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부모 방임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모 방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모 방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8].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방임적 양육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문화의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을 감소시키고 학교 적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요인은 국가 정체성이었다. 이는 Park 등[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높은 국가 정체성이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식 개선 교육을 마련하여 올바른 또래집단 문화를 형성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 환경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우리사회 공동체 소속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 외에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도가 높다는 선행연구[1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교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14].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실력은 학교 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므로[14]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고, 한국어 수준에 맞는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한국어 읽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학력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한국어 읽기와 말하기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도가 높고, 어머니의 낮은 한국어 수준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3,10,1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외국인 출신 어머니의 경우 한국어 사용에 서툴러 자녀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6]. 더불어 다문화 어머니의 낮은 수준의 한국어능력이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 생각된다[10].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고 다문화 어머니들이 한국어 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 규모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의 영향요인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거주 지역의 규모에서 읍·면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중·소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보다 학교 적응 정도가 높다는 선행연구[10]와 유사하였다. 이는 읍·면이 도시에 비해 학교 규모가 작고 구성원이 적어 또래, 교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10]. 선행연구에서 또래와 교사의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거주지역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교사의 배려와 지지를 통해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자아탄력성, 부모 방임, 국가 정체감이 주요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국가 정체성을 향상시키고 부모 방임 경험을 감소시켜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부모 방임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를 선별하여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방식을 교육하고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 정체성과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학교 적응 향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의 제4차년도(2014)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 방임, 국가 정체성, 어머니의 한국어 읽기 능력, 다문화 청소년의 말하기 능력, 거주 지역 규모,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말하기 능력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국가정체성을 향상시키고

부모 방임 경험을 감소시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분석한 연구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향상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언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심리적 특성 및 학교 적응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생, 중학생, 고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학년별로 학교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후속 연구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 학교 적응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ORCID

- Cho, Hun Ha <https://orcid.org/0000-0001-9702-0590>
- Jung, Yu Jin <https://orcid.org/0000-0002-3079-7597>
- Nam, Kyung ah <https://orcid.org/0000-0002-0872-8288>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2009-2020 Marriage immigrants by nationality [Internet]. 2021 [cited 2021 December 8]. Available from: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16&conn_path=I2
2. Ministry of Education. 2019 Multicultural Education Support Plan [Internet]. 2019 [Cited 2019 December 31]. Available from: <https://moe.go.kr/boardCnts/fileDown.do?m=0302&s=moe&fileSeq=9909a114ffb75d9e53c6faf3d427bcc1>
3. Joo J. A study on education program for teenage stud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decrease the rate of school dropouts.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2016;3(1):91-113.
4. Yun GH, Jang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linquency risk prediction of juvenile of multicultural. *The Police Science Journal*. 2015;10(1): 147-78. <https://doi.org/10.16961/polips.2015.10.1.147>
5. Han JH, Kim KH.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on the delinquency experience of multicultural adolesc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2020;0(64):145-64. <https://dx.doi.org/10.35422/cwsk.2020.64.145>
6. Eun SM, Lee SH, Lee KY. Acculturative stress amongst multicultural adolescents: patterns, predictors, and psychosocial outcome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9;30(2):177-211. <https://dx.doi.org/10.14816/sky.2019.30.2.177>
7. Choi EJ. Analysis of variables affecting high school multicultural students school adjustment [Master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21. pp.1-109.
8. Son HJ.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 clien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2020;13(3):27-54. <https://dx.doi.org/10.14328/MES.2020.9.30.27>
9.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8 A study on the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Internet]. 2019 [Cited 2019 March 31].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20
10. Seo BJ. The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aring attitude and school life adjustment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teenager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2017;14(3):111-33.
11. Park JY, Chae JE, Chao MD. The effects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and ego-resiliency on school A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middle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Multiculture and Peace Institute*. 2020;14(2):101-21. <https://dx.doi.org/10.22446/mppisk.2020.14.2.005>
12. Byun EJ, Sim HS. Effect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upport on multi-cultural primary school student' school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4):1753-65.
13. Park BH. The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Welfare and Cultural Diversity Studies*. 2022;4(1):21-39.
14. Park SH, Jeon YS. Moderators of the effects of delinquent factors on delinquency for multi-cultural youth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2017;11(3):55-76.
15. Kim TI, Kwon YJ, Kim MJ.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e*. 2012;18(2):85-97. <https://dx.doi.org/10.4069/kjwhn.2012.18.2.85>
16. Park HJ, Yang YA. Impacts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on school life adaptation : Based on medit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0;20(8):418-28. <https://doi.org/10.5392/JKCA.2020.20.08.418>
17. Kim TI, Kwon YJ, Kim MJ. Phenomenological study on mothering experiences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urban area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e*. 2012;18(2):85-97. <https://dx.doi.org/10.4069/kjwhn.2012.18.2.85>
18. Kim EH, Cui L, Nho CR. Effects of family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ego resiliency and school adjustment and multiple grou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019;0(68):87-114. <https://doi.org/10.24300/jkscw.2019.12.68.87>
19. Heo MY.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0. pp. 1-94.
20. Lee KS, Baek HJ, Lee JW, Kim JY. The annual repor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December 26. Report No.:11-R10.
21. Seong HG. Development of Korean social identification scale.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01;15(3):33-48.
22.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1996;70(2):349-61.
23.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02;16(4):189-206.
 24. Kwon JE. Relation of ego-resiliency,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Master the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2. pp. 1-52.
 25. Kim JK, Baek HK, Lim HJ, Lee KO. The annual repor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December 27. Report No.:10-R01.
 26. Lee WK, Yu HE, Lee CH.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19;21(1):65-90. <https://doi.org/10.24055/kaps.21.1.3>
 27. Hong NM, Park HJ.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Academy of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2017;8(2):125-51. <https://dx.doi.org/10.22836/kaswpr.2017.8.2.125>
 28. Lee WK, Yu HE, Lee CH.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elinquency of multi-cultural juvenile.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2019;21(1):65-90. <https://doi.org/10.24055/kaps.21.1.3>
 29. Hong NM, Park HJ.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in the inflence of parents' neglect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Korean Academy of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2017;8(2):125-51. <https://dx.doi.org/10.22836/kaswpr.2017.8.2.125>
 30. Kim JK, Baek HK, Lim HJ, Lee KO. The annual report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I.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0 December 27. Report No.:10-R01.